

# 먹의 스میم과 번짐이 만든 풍경 화선지 여백 열정으로 채워요

## 점음! 그 열정과 꿈

(2) 한국화가 설박씨

3령이나 될까? 작업실 문을 열자 팔월의 태양에 달궈진 방안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왔다. 김치와 생수 한 병을 품고 있던 조그만 냉장고가 내뿜는 열기마저도 버거워 보일 정도로 방 안은 뜨거웠다. 바닥에 수북이 쌓인 화선지와 미완성 작품, 창가에 놓인 새러 심블릿의 명저 '예술가를 위한 해부학'만이 이곳이 '화가의 방'임을 짐작케 해준다.

번개와 폭우가 치던 지난 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다던 한국화가 설박(28·본명 박설)씨가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대동 아트스튜디오'에서 맞은 2011년 8월 1일 아침 풍경이다.

"덥지 않나?"는 말에 "작업하던 화선지가 바람에 날려, 선풍기도 켜지 못한다"고 답하는 그녀의 눈빛은 잘 번짐 농묵처럼 활기찼다.

그녀는 먹을 먹인 화선지를 찢어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작업을 하기에 화선지가 바람에 날리면 작업을 망칠 수 있다.

이곳에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녀의 고향집은 누구나 하룻밤 잠을 청하고 싶어하는 죽설현(竹雪軒)이다. 그녀는 사철 꽃이 피는 그림 같은 나주 죽설현의 주인장인 한국화가 박태후 화백의 딸이다.

그녀가 시원한 고향집을 마다하고 삼복더위에 이곳에서 먹고자는 것은 '나에게 가장 엄하기'라는 자신의 예술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첫 개인전('어떤 풍경'·금호갤러리)을 연 뒤 출품 의뢰가 이어졌고, 그녀는 매 번 신작을 내놓고 있다. 최근 작업에 매달린 것도 지역 미술관 여러곳이 함께 기획하는 '무등산전'에 출품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젊은이간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며 자연스레 "나도 화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녀는 한동안 붓을 놓고 방향을 했다. 직장도 구해보고, 6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머물기도 했다.

"어느날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방향은 화선지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오랫동안 잃어버린 조각들을 맞추려는 노력이었다는 거죠." 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후원도 컸다.

"아버지는 늘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라'고 말하세요. 저

## 물들인 종이 찢어 붙인 독특한 산수화 주목

### "새로운 도전에 희열... 해외 레지던스 응모"

그녀의 작업은 고난의 연속이다. 화선지에 물을 먹인 뒤, 다시 종이를 찢어 찢아 찢아 농묵으로 나뉜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수차례 반복해 종이를 이어붙인다.

그녀에게 주어진 색은 오로지 흑과 백이다. 화선지에 스민 먹의 짙음과 옅음에 따라 실루엣의 경계와 산자락이 생기고, 하얀 여백은 바다와 구름이 된다.

의도하지 않은 먹의 스میم과 번짐이 만나 새로운 산수화 '어떤 풍경' 연작이 탄생하게 됐다. 딱 맞아떨어지는 화선지 조각을 찾아내는 것만큼 그녀의 예술 인생도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작업 모습을 보

또한 제 작업을 하다 보면 무언가 이뤄질 것 같아요."

그녀는 최근 해외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도전하기 위해 더욱 많은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한국화를 다양하고 현대적으로 선보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작가들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어떤 풍경' 시리즈가 2년 됐는데 새로운 작품을 고민하고 있어요.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전남대 미술학과를 나온 뒤 동상이풍전, 광주비엔날레기념특별기획 디지털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일 한국화가 설박씨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무더위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막 내린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 공연'

# 유명 공연 소개 '의미'... 완성도 '아쉬움'

8개 작품에 유료 관중 3482명

올해 첫선을 보인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 공연 축제'가 지난 28일 극단 더 페르톤 컴퍼니의 '카르마'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재단측이 제작한 '자스민 광주'를 시작으로 놀이패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 등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지역 브랜드 작품 4개와 국가 브랜드 작품인 국립무용단의 '코리아 판타지' 등 모두 8개 작품이 공연됐다.

또 한보리 노래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은 일주, 김미숙뿌리무용단 등 지역 단체들의 대표 작품을 지역민들에게 한자리에서 선보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페스티벌에 소개된 8개 작품을 관람한 관객은 모두 7200명. 이중 유료 관객은 3482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단체들이 직접 표를 판매한 지역작품들과 달리 '보이책', '카르마' 등 외지 작품에 대한 티켓 판매가 회당 100여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의 맥을 잇는 것이었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행사 컨셉을 바꿔 진행하느라 애로가 많았다.

국제공연예술제의 예산은 6억원 수준. 하지만 올 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1억 6000만에 불과했고 행사 주최측은 결국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의 지원을 받는 등 공여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보이책' 등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 축제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연 관련 페스티벌인 점을 감안하면, 작품 수가 너무 적고 일부 작품의 수준도 떨어졌다.

특히 수익 등에서 자유로운 관이 주최하는 페스티벌임에도 문화계의 새로운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실험적인 작품이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다.

무엇보다 개막작으로, 재단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자스민 광주'는 5억원이 넘는 예

산이 투입됐지만 고단적인 연출과 작품 구성으로 완성도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초창작이었던 국립무용단의 '코리아 판타지' 역시 한국무용의 새로움과 발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 대신 부채춤, 장고춤 등 다소 식상한 레퍼토리를 갈라 형식으로 진행, 아쉬움을 남겼다.

그밖에 일부 지역 작품 역시 '브랜드 공연'으로 계속 이어지기에는 많은 수정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면서 작품 선정에 애를 먹었다"며 "내년에도 브랜드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며 외국 작품 등 유명 공연물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이책'

## 백화점에 가면 '문화 피서'

광주신세계갤러리 31일까지 16주년 기념전

광주신세계 갤러리는 백화점에 자리 잡은 이색 문화 공간이다. 특히 올해로 13회를 맞고 있는 광주신세계미술제는 그동안 1회 손봉채, 8회 이이남씨 등을 선정한 전시를 지원해 주는 등 젊은 작가들을 위한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31일까지 개관 16주년을 맞아 '백화점 속 문화유원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고근호·권승찬·김상연·나명규·마C·박수목·박현규·신호윤·안희정·이매리·이영실·이이남·이정기·인춘교·정운하·조광석씨 등이 참여해 회화, 입체, 설치작을 선보인다.

고근호씨의 2m가 넘는 환상적인 꽃 조각품을 선사하고, 김상연씨의 소원 들어주는 '날아가는 소'를 설치한다.



김상연작 '소원을 말해봐'

또 이정기씨는 욕망의 상징물인 대형 소뿔백과 돼지저금통을 이용한 설치작품을 전시하고, 이매리씨는 4m가 넘는 대형 하이힐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360-127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아카데미 5번째 강좌

11일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광주 북구청이 주최하고, (사)광주·전남작가회의가 주관하는 제13기 광주문화아카데미 5번째 강좌가 오는 11일 북구 중흥동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태호>

이번 강좌에는 명지대 미술사학과 이태호 교수를 강사로 나와 '다산 정약옹과 추사 김정희의 서화세계'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 교수는 다산의 작품과 추사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당시 사회적 상황적 정치적 흐름에 따른 예술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이 교수는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 등의 저서를 냈다. 문의 062-523-783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oknwood.com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탈)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조보드

다양한 내장재

-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들(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접합유리방염, 필름합판, 문짝, 물딩

판매품목

- 장승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박이장 · 족욕기 · 독서대 · 책상Set(의자 · 책꽂이)
- 침대 · 선풍 · 편백건강매(편백매시트 + 결명자시트) · 편백나무베개 · 편백가습기 수백

편백나무 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652-2935 · 2223 fax. 062)651-5141

· 협력사 | 우던페이퍼몰딩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www.oknwood.com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탈)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조보드

다양한 내장재

-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들(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접합유리방염, 필름합판, 문짝, 물딩

판매품목

- 장승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박이장 · 족욕기 · 독서대 · 책상Set(의자 · 책꽂이)
- 침대 · 선풍 · 편백건강매(편백매시트 + 결명자시트) · 편백나무베개 · 편백가습기 수백

편백나무 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652-2935 · 2223 fax. 062)651-5141

· 협력사 | 우던페이퍼몰딩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